

## 간화선 대중화 닷 올린다

### 조계종, 지도자 양성교육기관 설립 추진위 구성 청소년·대학생 위한 프로그램 개발팀도 발족

조계종이 간화선 대중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조계종은 간화선 지도자 양성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청소년 및 대학생 불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등 전방위적인 간화선 대중화에 나선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화랑)와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진명)은 10월 18~19일 대구 동화사 비로암에서 전국선원수좌회 스님 및 불교학자, 종무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간화선 지도자 양성 교육기관 설립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추진위는 교육원, 포교원, 전국선원수좌회 스님과 종무원 및 불교학자들로 구성돼 올해 안에 발족할 예정이다. 간화선 지도자 교육기관의 성격과 교육형식, 커리큘럼, 기간을 결정하는 등 지도자 교육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화선 지도자 양성 교육기관 이수자들은 신도기본교육을 마친 조계종 신도 및 간화선 입문자를 대상으로 중단이 지정한 사찰에서 간화

선 수행 프로그램을 지도하게 된다. 간화선 지도자는 출·재가자 구분 없이 될 수 있으며 출가 지도자는 4안거 이상을 성만할 자, 재가 지도자는 간화선 실참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한다.

불학연구소 박희승 연구자장은 "중단 차원에서 전통 간화선 수행체계를 사부대중에게 쉽게 전달할 지도자 양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위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2002년부터 연구를 시작, 올해 초에 펴낸 <간화선>과 1, 2차 기본수행 시범운영에 이어지는 '간화선 기본수행 프로그램' 일환"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또 일반 신도 뿐 아니라 청소년과 대학생 불자들도 간화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10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청소년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 연구개발팀'을 발족시켰다.

연구개발팀은 앞으로 청소년 계층의 정서와 수준에 맞는 간화선 프

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청소년 심성개발프로그램과 고민상담방법, 영상음악자료 축적 등 청소년 포교를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포교연구실장 진명 스님이 의장을 맡고 봉은사 교육국장 선업 스님과 김형중 종합학교 교회사 등이 연구개발팀에 참여한다. 또 연내에는 대학생들을 위한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 연구개발팀도 꾸려질 예정이다.

이은비 기자 renv@buddhapia.com



양주 회암사지 유물 소유권 확인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0월 20일 회암사 봉선사 문화재청 양주시 등 관계자와 의정부 지방법원 담당판사 등이 회암사지 전담대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27일 정책 토론회

제32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10월 27일 오후 3시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이 토론회는 청정선거실현 승가운동본부, 화합승가포럼, 청정선거문화정책 운동본부, 한국불교기자협회 등 4개 단체가 주관하고 교계 언론사 등이 후원한다.

청정선거실현 승가운동본부 정책국장 원명 스님은 "청정선거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 동국대이사회 갈등 '점입가경'

#### 18일 영배 스님 연임 결의...장윤 스님 '무효' 소송

동국대 이사회가 11월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영배 스님의 이사 연임을 결의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이사회 결의 무효를 주장이 제기되는 등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제214차 동국대 이사회가 열린 10월 18일 오전 이사회 현해 스님은 통도사 스님들의 이사회 저지에 대비, 경비용 직원들 30여명을 고용했다. 영배 스님의 이사선임을 반대하는 통도사 스님 40여명이 이사회 회장 진임을 시도하면서 대학본관은 고초가무와 소화가 분발이 뿌러지는 등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 와중에 영배 스님의 재임을 지지하지는 9명이 참석했지만 이사재임을 반대하는 지관·장윤 스님은 이사회 참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19일 장윤 스님은 "이사의 정당한 회의참석을 저지한 것은 불법으로 영배 스님의 이사선임이 원천무효"라며 "유예가 없는 용역 동원이라는 치욕스런 상황을 연출한 책임을 지고 나를 포함한 승려이사 모두가 동

반 사퇴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영배 스님은 20일 "난중 수준의 폭력적 방법을 통한 원만한 회의진행이 방해받는 상황에서 경호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무처직원의 입장 권유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회의장 입구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바로 학교를 빠져나간 것은 이사회 개최의 적법성 시비를 위한 의도적 불참"이라고 주장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  
등반 총만, 안-해공제일 수보리  
혜거 스님 10월 26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KT정보센터

영문 포탈 부타피아 eng.buddhapia.com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금강불교예술품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크스님 범위, 범구경도 맞춤형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가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홍도: 북장익, 상량석, 영가천도, 불사)  
성물크기(3.5×5.0cm) / 금강경 24매

### 회암사 유물 소유권 소송 '현장 검증'

'맷돌 회암사 소유' 확정  
양주 회암사주지 각역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회암사지 유물 소유권 확인소송과 관련, 의정부지방법원 민사12부 재판부는 10월 20일 회암사지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원고인 회암사와 피고인 문화재청·양주시청을 비롯해 회암사의

양주시청이 "회암사지 맷돌(경기도 민속자료 제11호)에 대해서 원고와 소유권을 다투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회암사지 맷돌 소유권은 회암사의 것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회암사지의 패배대·석조·불계단 등 다른 지상문화재들도 회암사의 것으로 결론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박익순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속보 buddhanews.com

**'할'**  
부처는 청정법신인데    어찌 동막대기라 하는가?  
머칠째 서려대    옹기니 이제 용맹정진 하는군  
그림·조태호  
약산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 기호1번

### 화합과 안정 그리고 미래, 한국불교의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관스님의 종단 운영 4대 기초

화합을 바탕으로 종단 안정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사부대중의 한글같은 바탕은 화합을 바탕으로 한 종단안정입니다. 대립과 갈등으로 혼란과 좌절을 경험한 우리 종단은 '화합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협력'을 가진 총무원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가 전통인 '공의'에 의한 원용회합은 자란스님의 변함없는 소신이며 종단운영의 제1의 원칙입니다. 문종과 계과를 떠난 '공평무사한 인사원칙과 제도 정착' 그리고 권위와 독단을 배제한 '수평적 의사 결정'은 한국불교의 안정과 희망을 열어갈 것입니다.

종양과 교구의 조화로운 발전, 교구 활성화로 실현하겠습니다.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지방교구와 교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이룩해가야 합니다. 중앙총무기관은 각지만 효율적인 총무원장을, 교구본사는 권한과 위상 강화로 특성에 맞는 본관총무원장의 기틀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대 흐름을 통찰하고, 풍부한 경험과 행정력을 갖춘 지관스님의 결단력은 교구발전의 새 지평을 열어줍니다.

통제대버사상, '자비의 나눔'으로 존경받는 종단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심각한 양극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계층의 정경하지 못한 부의 축적은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전하고 경쟁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위기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비정한 사회 현실을 극복하는 길은 자리아타(利利利利)의 정신에 따라 '자비의 나눔'을 대중화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종단', 지관스님이 추구하는 종단운영의 방향입니다.

정보화 세계화의 시대, 한국불교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17000년의 유구한 전통을 간직한 한국불교는 '진통과 현대'의 조화를 추구하여 국민의 정신을 인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제31대 총무원이 일궈놓은 '세계속의 한국불교'를 계승하여 한국 선불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제불교대회' 등을 통해 세계 각국의 불교와 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제32대 총무원장 후보로 입후보는 지관스님은 이(理)와 사(事)를 겸비한 경력이 높은 학덕, 겸비한 수행자의 자세로 종단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관스님의 10대 분야 총책공약

1. 수행총종 전략: 총지 총종의 수호와 집중, 종단 수행 체계의 정비, 신사상 연구원 설립 및 후속대회 개최
2. 교구본사 역량 강화, 교구활성화 실현: 각 교구본사 특성에 맞는 본관총무원장의 기틀 마련, 일사부지 인사권 이회 후로 총무 권한 교구본사 상설에 맞게 이양, 현인 영재, 문화, 환경 등 세 따른 권역별 사찰 네트워크 운영, 교구문화재 관리역 위한 국고지정 확충
3. 열린 종단, 효율적인 총무원장: 불자중심의 공명무시한 인사제도 정착, 교육원, 포교원, 화합원 및 승정기 전역 수립, 종단 자산의 효율적 관리(종단 재량 확대 계획단 구성), 비구니부 신설(교역역 인사 통합)
4. 수행 및 교육: 승종과 법제에 따른 교구별 재교육 시행, 역경사상 기강 조성(내명경전, 범어원전의 역경, 각종 사경 원전) 상설 총자 교육원 설립, 불자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인터넷 불교대학 설립
5. 전법 및 포교: 수행과 전법교육 활동의 체계적 지원(지원예산인 편성), 권역별 국제 포교 지원과 외국인 포교 지원, 미전 개척 및 포교 활성화(각 계층별 사회시설 및 네트워크 구축)
6. 문화: 인문학의 전통 계승과 보수에 대한 국제예산 축출, 웹툰이시 가능 및 국가 지원 강화, 불교문화원원 콘텐츠의 생산과 활용인 마련
7. 승가 및 재가 총무원 복지 향상: 정부 및 각종 기관 등 연계한 '승려노후복지 사업' 마련, 사찰 일반적 총무원의 자유개신 및 각종 복지 혜택 부여
8. 범사회 활동: '자비의 나눔' 운동 전개,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불교사회복지센터' 설립 지원(불교 인력으로서의 역할) 인종 및 생명환경분야에 대한 종단적 대책 및 지원, 북한 지역 사찰과 문화재 현황 파악, 북구지원 강화
9. 국제 불교 교류 및 협력: 해외 불교 담당 전문 부서 마련, '국제불교 네트워크' 구성 및 '세계불교대회' 유치
10. 불교관련 국가정책 해결 추진: 현안 '불교관련법' 개정 추진, 정부 및 각 정당과의 협력 체계 구축, 대외부 공약과 정책 이행 추진

대한불교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후보 지관스님 선거대책위원회